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율법주의의 뿌리

성경: 누가복음 18장 9-14절

Tag: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눅18:9-14)

시대마다 율법주의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각을 열게 만들어 정해진 윤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지 않는 자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해방시키셨다.

오늘날의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율법주의의 뿌리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믿음’이 존재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인데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런데 말씀의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율법주의자에 대한 정의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믿음은 좋은 것이로되 믿음의 대상으로, ‘자기의 의’를 믿는 것 만큼 위험한 믿음은 없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종교이지, 자기의 의를 믿는 종교는 아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양심 이런 거 믿지 말라. 아예, 나는 아직 덜 익었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겸손을 떨라는 말이 아니다.

-진실하라는 말이다.

차라리 자기에 대한 믿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확신이 가장 정확한 믿음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눅17:10)

*그렇다면 기독교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신앙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였습니다.

*두번째 율법주의의 뿌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결국 상대방의 강점이나 좋은 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장점과 약점이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든 비판할 것만 눈에 보이지 도무지 배울점이나, 내것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리는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다. 세리 스스로도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세리를 긍정적인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려고 수모를 견디면서 묵묵히 일을 할 뿐이었다.

-물론 그들 중에도 악한 자들이 있다. 규정을 어기고 많이 징수 한 다든지, 약자든지 괴씸한 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든지 공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있었다. 세리라면 누구든지 그런 유혹을 받았으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도 아마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나쁜짓을 저지르고 양심에 가책이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으리라.

-아니면 예수님 말마따나 먼저 가서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염없이 울다가 돌아간 세리였는지 모른다.

*율법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일단 자신이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통 선량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요즘 특히 영접결에 교통신호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30km 속도 규정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어제도 사거리 들어서자 노란불이 되었는데 앞차가 30km 규정 때문에 천천히 가는 바람에 조바심나면서 운전했는데, 나는 짝한 것 같

아 불안하다.

-몰라서 죄 짓고, 설마 하다가 죄 짓고, 헛김에 죄 짓고, 오해해서 죄 짓고, 속아서 죄 짓고...

-나는 솔직하게 의견 제시했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도 있다. 어쩔하나 주위 담을 수도 없는데.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 실존의 나약성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자들이다. 실수할 때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댓가를 성실하게 지불하는 자들이다. 반복적인 일이라고 허투루 하지 않고, 매번 정성을 다해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 율법주의자들의 이상한 감사제목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바람 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플라스틱에 커피 마시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발언 같지 않는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율법주의다.

* 율법주의 자들의 이상한 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예수님의 의가 아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

의로 충만한 나머지)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

(나 헌금 했어요, 나 금식했어요, 나 기도 많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법;자신의 영혼을 바르게 함이 올바른 사용법.

*세계는 지금 이념전쟁 중이나, 한국은 더 특이한 이념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김일성주체사상 중심으로, 김일성일가 독재체제인데, 김일성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중북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

-미 제국주의 앞잡이라는 표현은 정당한 표현이고, 중북이라 표현하는 것은 혐오발언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찬양, 김일성 찬양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5.18관련 비방은 법으로 금지한다.

-중국은 찬양하고 동조하고, 미국과 미군은 결사 반대한다.

-정의를 부르짖는데 정의는 없고, 평등을 부르짖는데 특권만 가득하다.

-혁명론은 프로레타리아 혁명론이다. 그 전략의 핵심은 거짓말도 전략이고, 가난한자 약자는 폭력도 정의다. 강자가 더 악하니까. 먹히면 좋고 먹히지 않으면 말고다.

이념 율법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수가 작아서 뭉치는 성격이 강하고 이들은 거짓말도 이념을 위해서라면 전략적 수단으로 여기는자들.

자기들끼리도 그것이 거짓말인지 알지만,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묘수라고 생각함.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뭐

든 OK. 모략도 전략이다.

-광우병 사태;당시에 가장 효과적인 정치선전
-사드 전자파 없음;그래도 반미에 더 할 나위없는 케치프레이즈. 사드 전자파에 성주 주민들이 튀겨지고 있어요! (전자파 위해성 검사를 4년간 미뤄왔음.)

그래서 훨씬 언론 플레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편.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현재 이념올범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무리에서 중북론자들을 속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야 한다.

우파 사람들은 비교적 엘리트들이지만, 멍치는데 약하고 각자의 재능으로 무한경쟁을 벌이는 사람들.

다 같은 죄인인데, 죄짓는 양상이 서로 다름. 그래도 이쪽에는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에서 공부한 미국파, 독일에서 공부한 독일파, 영국에서 공부한 영국파 유학생들이 서로 갑론을박 하는 중. 결국은 한국파로 결론 날 것 같음.

이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충청도식 접근법. 이분들의 말하는 방식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서로의 공통된 잇속을 챙기는 대화법을 발전시킨 사람들. 말을 부드럽게, 말투를 재밌게.

-곧 북한과 통일하게 되는데, 우리는 충청도식 대화법을 잘 익혀두어야 한다. 배달의 민족은 배려하는 민족이다. 우리나라 좌파는 중북을 걷어내야 비로소 좌파. 정치는 좌파와 우파가 견제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좋다.

우리도 얼마든지 율법주의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세리처럼 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자.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소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정치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식 통일을 꿈꾸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세력이 쪼그라들게 하시고, 오직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게 도와 주소서.

이 시대에 정의라고 부르짖는 이상한 율법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편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게 도와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

성경: 시편 2편

Tag:

-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쁨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 3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 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 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 7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 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 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 10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이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 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2:1-12)

-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 *현재의 세계는 각나라에, 특히 선진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특히 경제적 타격이 크다.
- *특히 이념 율법주의는 기독교 가치관과 갈등을 빚는다.

-이념 율법주의에 전도된 교회는 세속화되고 가스라이팅 당한 교회다.

*가스라이팅 뜻 (GasLighting)

가스라이팅에 대해 정의하자면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주성을 교묘하게 무너트리는 언행으로 피해자가 가스라이터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려는 정신적인 조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연인 사이 등 친밀도가 높게 형성된 관계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가스라이팅 뜻 (정의)만 봤을 때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알기 쉽게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만들으로써 가스라이터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정신적인 학대이자 세뇌의 일종(emotional abuse)으로 상대방 길들이기를 통해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일련의 그릇된 행동입니다.



<https://youtu.be/ET17i3DhCAo>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작은 교회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은 정경인 성경말씀을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관 확립

- 진짜 경건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 당기기
-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
-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현재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은 왜? 힘없고 나약한 동포 북한을? 북한은 오래도록 적화 야욕을 구체적으로 표현함.

-북한 주민들이 위협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김일성 계승자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악의 축이다.

-전쟁은 핵심인물 축출작전이어야 하고, 모든 전력자원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집중된 뒤에 작전이 개시되어야 한다.

-그 사이에 준 핵미사일 발사 사건이 벌어져 주면 좋다. 그 날이 김정은 제삿날이다.

-공교롭게도 압록강은 중국과 두만강은 러시아와 연결해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이 세계의 악의 축이 되었다.

- 이 세 나라는 공산주의를 실험하다 망하거나, 망해가는 나라. 세 나라 모두 독재국가. 모두 나쁜짓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 주민들을 통한 쿠데타는 힘든 나라.

- 과거에는 이슬람이, 카톨릭이 우세함.

- 산업혁명 이후 식민지 시대에는 영국, 네덜란드가 우세함.

- 100년 전에는 공산주의가 득세함.

- 1917년 10월 혁명(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년이 흐름.

- 1945년까지 세계 1,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지 시대 종말.

- 냉전시대-소련의 멸망(부패로 망함)

- 일본 시대

- 2000년 이후 중국 약진 시대
- 2001년 이슬람 테러 시대
- 중국 시진핑 일대일로 약진 21세기 one belt one road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CPTPP(중국 공산주의의 만연한 부패에 망함)
-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시대-군사 경제 협력체
- 현재는 러중북 3국이 악의 축이 됨.
- 왜 북한은 악의 축이 되었는가? 공공연하게 미국을 적대하기 때문. 현재로서는 노골적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더 강함.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지만, 일단 핵으로 미국치기니까, 분명한 도발임.
- 현재는 남한도 도발에 포함됨. 과거 남한에 대한 도발은 수 없이 많음.
- 아예 중북세력까지+중국까지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음.
- 안보와 이념에서 든든한 방어력을 구축하도록 기도하자!